



강 북 구 의 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 의정 활동 보도

2015년 6월 1일  
(월요일)

강북신문 5면



29일 강북봉제지원센터 현장을 방문한 행정보건의위원회 위원들이 내부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의위원회

## 강북봉제지원센터 현장방문...활성화 방안 제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의위원회(위원장 구본승)는 제189회 임시회 회기 중 지난 5월29일 오전 10시 구본승 위원장과 장동우·이백균·김영준·이정식·강선경 의원 등 위원들이 함께 강북봉제지원센터(강북구 삼각산로 121, 수유3동)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서 위원들은 황길룡 강북봉제지원센터장으로 부터 지원센터 운영현황과 봉제업체 지원실적에 대한 추가 보고를 받았다.

강북봉제지원센터는 강북구가 전액 서울 시비를 지원받아 주민들의 봉제기술교육을 통한 취업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소규모 영세한 봉제업체의 시설개선 지원을 위해 지난 2012년 6월 설립되어 그동안 봉제 기본교육 184명, 취업교육 91명이 수료했으며, 이

들 중 75명이 취업으로 이어져 취업률 71%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20개 봉제업체에 업체당 300만원씩(자부담 10% 이상) 총 3억1,116만8천원을 지원했고, 봉제 임차지원사업으로는 현재까지 54개업체에 업체당 80만원씩(자부담 20%이상) 2,969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총 3억원의 예산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방문에 참여 대부분의 의원들은 관내에 유·무등록 봉제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센터 지원신청 참여업체가 120개 업체에 불과해 미흡하다며,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제기 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운영중인 홈페이지와 문자서비스 홍보 외에도 사업설명회 개최를 통한 홍보 다양화의 필요성과 더불어 취업생들의 취업후 근무실태를 파악하여 조기이직을 예방하고, 지속적 유지보수교육으로 업체가 필요한 인력배출로 취업유지율도 향상시켜야 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서 구본승 위원장은 예산지원업체나 취업생들의 사후관리를 통해 추가 필요사항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추가 지원과 사업에 반영 해줄 것과 지원센터 설립목적이 봉제교육을 통한 고용창출과 열악한 봉제업체 시설개선 지원인만큼 취지에 맞게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관계부서장과 지원센터장에게 당부했다.

서울포스트 4면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의위원회(위원장 구본승) 소속 위원들이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 행정보건의위원회 강북봉제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제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의위원회(위원장 구본승)는 제189회 임시회 회기 중 지난 5월29일 오전 10시 구청 정찬모 지역경제과장으로 부터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업무 보고 후 위원회 소속 장동우 의원, 이백균 의원, 김영준 의원, 이정식 의원, 강선경 의원과 함께 봉제지원센터(강북구 삼각산로 121, 수유3동) 현장을 방문하였다.

강북봉제지원센터장(황길룡)은 "전액 서울 시비를 지원받아 주민들의 봉제기술교육을 통한 취업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소규모 영세한 봉제업체의 시설개선 지원을 위해 지난 2012년 6월 설립한 강북봉제지원센터는 봉제 기본교육 184명, 취업교육 91명이 교육수료하였으며, 취업교육생 91명중 75명이 취업으로 이어져 취업률 71%이며 또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20개 봉제업체에 업체당 300만원씩(자부담 10% 이상) 총 311,168천원을 지원하였고, 봉제 임차지원사업으로는 현재까지 54개업체에 업체당 80만원씩(자부담 20%이상) 29,69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도에도 3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관내에 유·무등록 봉제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센터 지원신청 참여업체가 120개 업체로 미흡하다며,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하고 있는 홈페이지와 문자서비스 홍보외에도 "사업설명회" 개최를 통한 홍보 다양화 필요성과 더불어 취업생들의 취업 후 근무실태를 파악하여, 조기이직을 예방하고, 지속적 유지보수교육으로 업체가 필요한 인력배출로 취업유지율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이어서 구본승 위원장은 예산지원업체나 취업생들의 사후관리를 통해 추가 필요사항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추가 지원과 사업에 반영 해 줄것과 지원센터 설립목적이 봉제교육을 통한 고용창출과 열악한 봉제업체 시설개선 지원인 만큼 취지에 맞게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행정보건위, 「강북봉제지원센터」 방문

홍보 다양화 필요성과 취업생들의 조기이직 예방 및 지속적 유지보수교육 필요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의위원회(위원장 구본승)는 제189회 임시회 회기 중 지난 5월 29일 오전 10시 구청 정찬모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업무보고 후 이어서 위원회 소속 장동우 의원, 이백균 의원, 김영준 의원, 이정식 의원, 강선경 의원과 함께 봉제지원센터(강북구 삼각산로 121, 수유3동) 현장을 방문하였다.

현장에서 강북봉제지원센터장(황길룡)으로부터 지원센터 운영현황과 봉제업체 지원실적에 대한 추가 보고를 받았다. 센터장에 의하며, 강북구가 전액 서울시비를 지원받아 구민들의 봉제기술교육을 통한 취업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소규모 영세한 봉제업체의 시설개선 지원을 위해 지난 2012년 6월 설립한 강북봉제지원센터는 그간 봉제 기본교육 184명, 취업교육 91명이 교육 수료하였으며, 취업교육생 91명중 75명이 취업으로 이어져 취업률 71%의 성과가 있었다.



▲ 강북봉제지원센터를 방문한 행정보건의위원들.

또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20개 봉제업체에 업체당 300만 원씩(자부담 10% 이상) 총 3억1천1백1십6만8천 원과 봉제임차 지원사업으로는 현재까지 54개업체에 업체당 80만 원씩(자부담 20% 이상) 2천9백6십9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3억 원의 예산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 참여 대부분 의원들은 관내에 유·무등록 봉제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센터 지원신청 참여업체가 120개 업체로 미흡하다며, 적극적 홍보의 필요성을 제기 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하고 있는 홈페이지와 문자서비스 홍보의

에도 “사업설명회” 개최를 통한 홍보 다양화 필요성과 더불어 취업생들의 취업 후 근무실태를 파악하여, 조기이직을 예방하고, 지속적 유지보수교육으로 업체가 필요한 인력배출로 취업유지율도 향상시켜야 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서 구본승 위원장은 예산지원업체나 취업생들의 사후관리를 통해 추가 필요사항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추가 지원과 사업에 반영 해줄 것과 지원센터 설립목적이 봉제교육을 통한 고용창출과 열악한 봉제업체 시설개선 지원인만큼 취지에 맞게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관계 부서장과 지원 센터장에게 당부하였다.

##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의위원회, ‘강북봉제지원센터’ 현장 활동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의위원회(위원장 구본승)는 제189회 임시회 회기 중 지난 달 29일 오전 구청 정찬모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업무보고 후 이어서 위원회 소속 장동우 의원, 이백균 의원, 김영준 의원, 이정식 의원, 강선경 의원과 함께 봉제지원센터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서 강북봉제지원센터장(황길룡)으로부터 지원센터 운영현황과 봉제업체 지원실적에 대한 추가 보고를 받았다.

이어서 황길룡 센터장은 “강북구가 전액 서울시비를 지원받아 구민들의 봉제기술교육을 통한 취업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소규모 영세한 봉제업체의 시설개선 지원을 위해 지난 2012년 6월 설립

해 그간 봉제 기본교육 184명, 취업교육 91명이 교육수료 했으며, 취업교육생 91명중 75명이 취업으로 이어져 취업률 71%의 성과,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20개 봉제업체에 업체당 300만 원씩(자부담 10% 이상) 총 311,168천원을 지원했고, 봉제 임차지원사업으로는 현재까지 54개 업체에 업체당 80만원씩(자부담

20% 이상) 29,690천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금년도에도 3억 원의 예산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현장 참여 대부분 의원들은 “관내에 유·무등록 봉제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센터 지원신청 참여업체가 120개 업체로 미흡하다”며 적극적 홍보의 필요성을 제기 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하고 있는 홈페이지와 문자서비스 홍보외에도 ‘사업설명회’ 개최를 통한 홍보 다양화 필요성과 더불어 취업생들의 취업 후 근무실태를 파악해 조기이직을 예방하고, 지속적 유지보수교육으로 업체가 필요한 인력배출로 취업유지율도 향상시켜야 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끝으로 구본승 위원장은 “예산지원업체나 취업생들의 사후관리를 통해 추가 필요사항은 무엇인지 파악해 추가 지원과 사업에 반영해 줄 것”과 “지원센터 설립목적이 봉제교육을 통한 고용창출과 열악한 봉제업체 시설개선 지원인 만큼 취지에 맞게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관계부서장과 지원센터장에게 당부했다.

유영일 기자